

18-1 제주목사공 거로파(巨老派)

사경 思敬, 9세, 제주목사공파 중시조, 제주목사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계파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명종대	德秀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仁烈인렬 文科문과	禹圭우규 主簿주부	瓊찬 進士 진사	應和응화 進士進士	伯元백원 文科문과	佑仁우인 進士進士	思敬사경 濟州牧使 조선태종대 (1400-1410 년)	1자 壽仁수인 수익교위 修義校尉 2자 富仁부인 3자 貴仁귀인 禦侮將軍 어모장군	濟州巨老派 제주거로파 濟州神山派 제주신산파 濟州洋衣幕派 제주양의막파

9세 사경(思敬)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도임했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시기는 태종[1400-1410] 때로 보인다. 사경(思敬)의 3형제 중, 장남 수인(壽仁)은 제주 거로(巨老)에, 둘째 부인(富仁)은 남원(南元)에, 막내 귀인(貴仁)은 성산(城山)에 자리를 잡고 후손을 늘려갔다. 사경(思敬)의 장자 수인(壽仁) 후손들을 목사공 거로파(巨老派)라 부른다.



수인 壽仁, 10세, 입도조(入道祖) 사경(思敬)의 장남, 수익교위(修義校尉)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壽仁수인 수익교위 修義校尉	克惠극혜	祿녹	1 根會근회	系春계춘	漢恭한공	奉義봉의	2 敏德민덕	1 起鳳기봉	2 承續승적	1 得昌득창	1 道隆도용

										3 致績 치적	2 得雲 득운	2 壬樞 임추
					2 隱會 은회	2 根田 근전	1 終男 종남	1 永鍾 영추	1 仁關 인백	1 重珍 중진	2 繼雲 계운	1 天祿 천록
											3 致績치적	1 元樞원추
												2 斗樞 두추
												3 天樞천추
										3 起麟 기린	1 先男 선남	1 元星 원성
									3 己動 기동	1 要根 요근	1 福男 복남	1 取雄 취웅
					2 隱會은회	1 厚連후련	1 後男후남	1 貞烈정렬	2 翠位취위	1 德完덕완	3 遠祥원상	2 光瑞광서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1 道隆 도용	1 遂發 수발	1 相位 상위	1 致範 치범	1 升聞 승문	1 時龜 시구	1 在錫 재석	1 商休 상휴	1 容燦 용찬				
	4 遂泰 수태	1 相豪 상호	3 聖範 성범	1 應圭 응규	1 時億 시억	1 屋錫 후석	2 商起 상기	2 廷熙 정희	1 暘富 창부	1 浩暎 호영		
2 壬樞 임추	1 振龜 진구	1 鶴齡 학령	1 萬元 만원	3 尙坤 상곤	2 林浩 임호	2 有邦 유방	2 希炯 희형	1 普文 보문	1 鍾煥 종환			
				2 夏圭 하규	2 時彬 시빈	1 熙錫 희석	1. 商彦 상언	2 昞璨 병찬	1 昌燁 창엽	1 敏範 민범		
	3 遂達 수달	2 汝穆 여목	4 鼻範 이범	1 禹徵 우징	1 時弘 시홍	1 圭鎔 규용	1 商玉 상옥	1 進河 진하	1 柄燦 병찬	1 翼準 익준	1 多仁 다인	
					3 起泓 기홍	1 雲龍 운룡	2 商洽 상합	1 承憲 승헌	1 祐松 우송			
		5 汝哲 여철	3 存範 존범	1 禹興 우흥	1 時鶴 시학	1 仁錫 인석	1 亥生 해생	3 昌基 창기	1 承哲 승철	1 雅仁 아인		
					2 之泓 지홍	3 圭大 규대	1 商銓 상전	3 銀河 은하	1 奉道 봉도	1 知桓 지환		
1 天祿 천록	1 敬富 경부	1 永芳 영방	2 益彩 익채	1 國柱 국주	4 宗淑 종숙	3 德敏 덕민	2 奎柄 규병	3 沅士 원사	3 東官 동관	1 承憲 승헌		
1 元樞 원추	1 光聞 광문	1 鶴集 학집	2 保殷 보은	4 在希 재희	1 仁天 인천	1 智憲 지헌	2 圭浩 규호	1 基榮 기영	1 昌恩 창은	1 政桓 정환		
		2 鶴樂 학락	1 承殷 승은	2 在休 재휴	1 仁學 인학	1 應祚 응조	1 容觀 용관	4 有桓 유환				
							2 容弼 용필	1 昌桓 창환				
							4 容駿 용준	1 丞桓 승환	1 光皓 광호			
							민속학자					

								2 丞禧 승희			
								3 丞道 승도			
	2 光隱 광은	3 弼信 필신	1 啓勛 계훈	1 在秀 재수	1 仁伯 인백	2 翼桓 익환	5 隆贊 용찬	1 晉昊 진호	1 道昀 도윤		
					3 仁國 인국	2 任桓 임환	1 永華 영화	1 承憲 승헌	1 宙祐 주호		
2 斗樞 두추	4 光浩 광호	1 之默 지묵	1 泰殷 태은	1 日和 일화	1 沂升 기승	1 在天 재천	1 字雲 자운	1 圭八 규팔	1 太錫 태석	1 景普 경보	1 丞赫 승혁
							3 祥雲 상운	2 昌然 창휴	3 誠洙 성수	1 尙訓 상훈	
								3 致邦 치방	1 忠勳 충훈	1 尙祐 상우	
									2 志洙 지수	2 女眞 여진	
									3 東勳 동훈		
3 天樞 천추	1 光輔 광보	1 鶴老 학로	1 始殷 시은	1 德純 덕순	1 承默 승묵	2 在浩 재호	1 應鍾 응종	2 永瑀 영오	1 玫植 민식	1 峻昊 준호	1 才烘 재홍
									3 泰植 태식	1 哲昊 철호	1 江 강
									4 根植 근식	1 起昊 기호	1 토니
									5 廣植 광식	1 勝旭 승욱	
									6 官植 관식	1 眞昊 진호	
			3 啓殷 계은	1 德聞 덕문	1 炳默 병묵	1 勳錫 훈석	1 一鍾 일종	2 斗玟 두민	1 昌翊 창익	1 正訓 정훈	
			4 慶殷 경은	1 德祚 덕조	1 弘默 홍묵	3 升材 승재	1 林鍾 임종	1 鳳壽 봉수	1 宗和 종화		
								2 鳳式 봉식			
								3 要安 요안			
								5 美惠 미혜			
		2 鶴壽 학수	1 命殷 명은	1 道源 도원	1 大默 대묵	1 升圭 승규	1 景昊 경호	1 斗石 두석			
			2 基殷 기은	2 道佶 도길	1 進默 진묵	1 升瑾 승근	1 弼昊 필호	1 錫岩 석암	1 尙潤 상윤		

		3 鶴舟 학주	1 世殷 세은	2 道亨 도형	1 明默 명묵	1 圭舜 규순	4 氣潤 기윤	3 厚吉 후길	1 漢拏 한나		
		4 鶴毫 학모	奎殷 규은	德義 덕의	昌默 창묵	升璨 승찬	敬大경대 검사,국회의원 6대 대총회장	宇榮우영			
								昭榮소영 음악학박사 홍익대학교수			
								昭惠소혜 법학박사,서강대학교수			
1 元星 원성	1 次位 차위	2 尙彬 상빈	1 世彦 세연	1 繼潤 계윤	4 應順 응순	2 永杓 영표	1 升現 승현	1 瑒厦 용하	3 桂浩 계호	1 仁煥 인환	
										2 仁澤 인택	
										3 仁圭 인규	
					5 應元 응원	2 永弘 영홍	1 升玉승옥 계평궤平	1 學哲 학철	1 大振 대진		
									2 大根 대근		
									3 大原 대원		
								3 學權 학권	1 大訓 대훈	1 承旼 승민	
1 取雄 취웅	1 武聖 무성	1 德貴 덕귀	3 萬彬 만빈	2 光訓 광훈	1 明化 명화	1 贊文 찬문	2 仁受 인수	2 永鳳 영봉	3 相敦 상돈	1 龍河 용하	
				3 光祿 광록	1 啓遜 계손	2 行奎 행규	3 斗玉 두옥	1 昌廈 창하	1 錫敏 석민	1 知喜 지희	
			4 萬永 만영	1 光得 광득	1 啓好 계호	1 承鶴 승학	2 興旭 흥옥	1 成洙 성수	2 根宅 근택	1 誥宇 선우	
2 光瑞 광서	1 永集 영집	2 桂漢 계한	1 基鴻 기홍	1 在殷 재은	1 鳳俊 봉준	2 平孝평효 제주대총장	1 天旭천옥	1 智娥지아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상휴 商休, 28세, 호 거은(巨隱), 훈장(訓長).

1862(철종13)~1905(광무9), 한말 학부의 교원. 제주시 화북동<별도> ‘거로-마을’에서 태어났다. 현상휴는 경신재에서 고경준에게 한문을 수학하던 젊은 때부터 세계정세에 통찰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1902년 5월 13일 제주군공립소학교 부교원(副敎員)으로 부임했다. 경학에 밝아 글을 잘해서 사종(師宗)이라고 칭해졌다. 이에 앞서 제주향교의 장의(掌議)로 재임할 때 오현단에 향현사(鄉賢祠) 유허비 건립을 주창, 1893년(고종30)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우게 돼 표제의 글씨는 현상휴가 쓰고 비문은 영운(靈雲) 고경준(高景駿)이 짓고 비문 글씨는 동곡(東谷) 이기용(李基琿)이 썼다. 비문을 건립하는 데는 경신재(敬信齋)의 접장 이기항(李基恒)과 유사(有司) 김봉하(金奉河)의 노력이 컸다.

용찬 容燦, 29세.

일명 정은(廷殷), 고종(高宗)5년 무진(戊辰, 1868년)생 학부(學部) 학무국 주사

창부 暘富, 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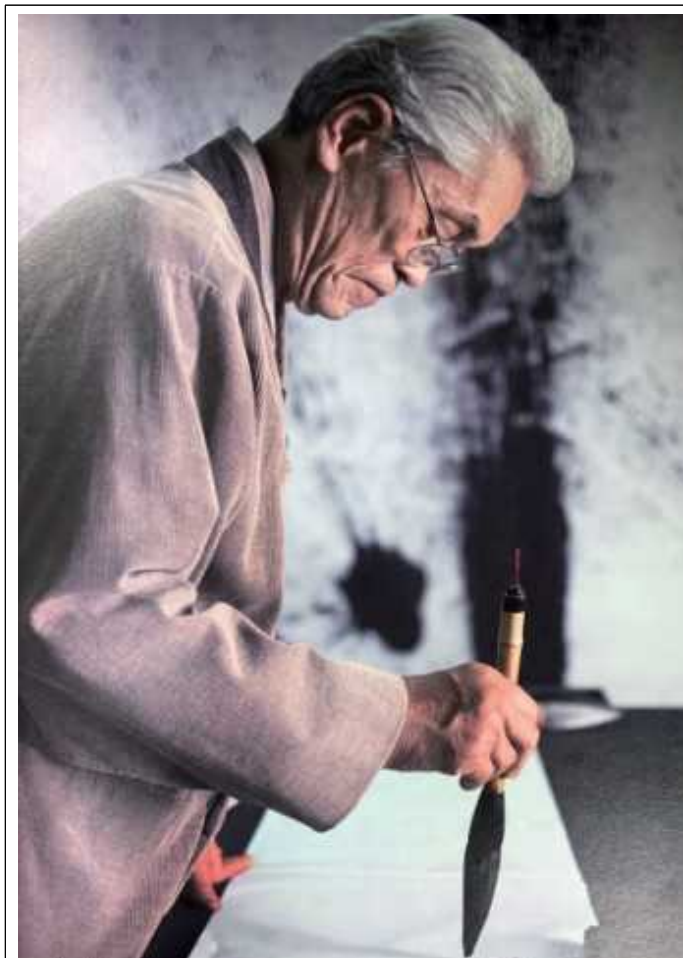
1958년생(父: 玄廷熙), 경영학 박사, (주)라이나생명 상근감사, 감사원 제2사무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홍조근정훈장, 천고법치 문화상. 대종회 부회장

희형 希炯, 28세.

1920년경신(庚申)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친족회장, 연주지 창간호 발간

보문 普文, 29세.

1945년을유(乙酉)생, 해군소령 학사





병찬 炳璨, 29세.

한글 동원(東園), 1940년경진(庚辰)생, 초등학교교사, 장학사, 교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대상 수상(1992)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한글서예분과위원장 부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대표회장, 현대한국대표서예가, 한글서체본(컴퓨터폰트) 제작, 황조근정훈장 수훈(2003), 제주친족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익준 翼準, 31세.

1956년병신(丙申)생, 경희대졸, 육군대위, <연주지> 4호 편찬위원장, 대종회 부회장

상흠 商洽, 28세.

호 아산아천(我山我泉), 1930년경오(庚午)생, (주)아산종합건설 회장. 제7대 제주도 교육의원, 평화통일자문위원 제주도친족회장,

창기 昌基, 29세.

1955년생, 메트로 관세사, 대종회 이사

은하 銀河, 29세.

일본 아라(我羅), 1936년병자(丙子)생, 일본대졸, 제주시 농협 서문지소장, 신민당 제주시 부위원장

봉도 奉道, 30세.

1962년임인(壬寅)생, 울산대학교 토목과 졸업,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학과, 박사 과정 중퇴, 現) 한라분석연구원(주) 대표이사, (사)한솔농식품센터 센터장, (사)21세기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대표, 제주도청년회 제12대 회장, 제주도친족회 이사,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원사 沅士, 29세.

호 종산(宗山), 1922년임술(壬戌)생, 제주향교전교(濟州鄉校典校), 성균관전의(成均館典儀), 성균관대유학(成均館大儒學)대학원 수료, 공직 삼십여성상(三十餘星霜)

동관 東官, 30세.

불명(佛名) 수연(水然), 1957년정유(丁酉)생,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사, 우리은행지점장, (주)피에이엠로지스 대표이사

승헌 承憲, 3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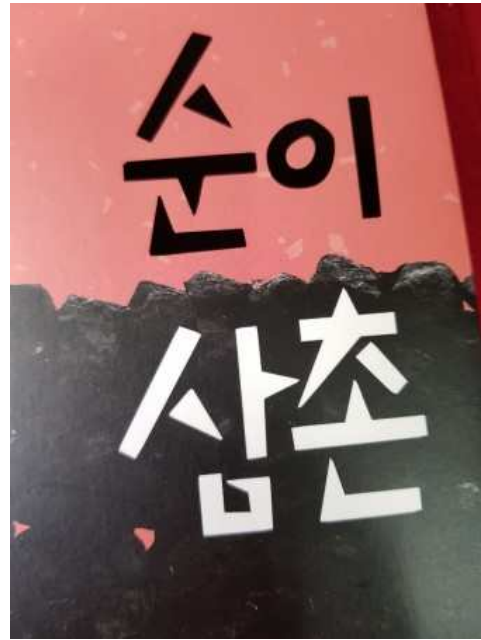
1986년병인(丙寅)생,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졸업, 하나투어 재직

규호 圭浩, 28세.

제주농업학교졸업, 육군중위

기영 基榮, 29세.

1941년신사(辛巳)생,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소설가,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과 졸업, 만해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외 다수 저서 ><순이삼촌>, <변방에 우짖는 새>, <지상에술가락하나> 외 다수



창은 昌恩, 30세.

1972년임자(壬子)생,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졸, 삼성에버랜드 재직

승은 承恩, 30세.

1979년기미(己未)생, 원광대학교 한의학과졸업, 한의사

용관 容觀, 28세.

호 귤포(橘圃), 1919년기미(己未)생, 훈장(訓長), 친진의숙(親進義塾)졸

유환 有桓, 29세.

호 도남(陶南), 1958년무술(戊戌)생, 한국교육개발원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사(2006),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전통예술학 석사(2013), 서울특별시행정국 세계평화미술조직위원회 서예공모전 특선(4회), 서울시공무원미술대전 서예부문 동상, 논문 <소암 현증화서예관(素菴 玄中和 書藝觀)> 대종회 사무처장 (2019-2024)

용필 容弼, 28세.

호 광암(廣菴), 1921년신유(辛酉)생, 친진의숙(親進義塾) 6년졸(1933), 제주시노인회 부회장, 한라일보 한시위원(漢詩委員), 실버대상 수상, 한시(漢詩)부문 제주시지사 표창 외, 다수 저서, 한시집 <한라산>(漢詩集 漢拏山), <한라산 2 -너분드르에 태 사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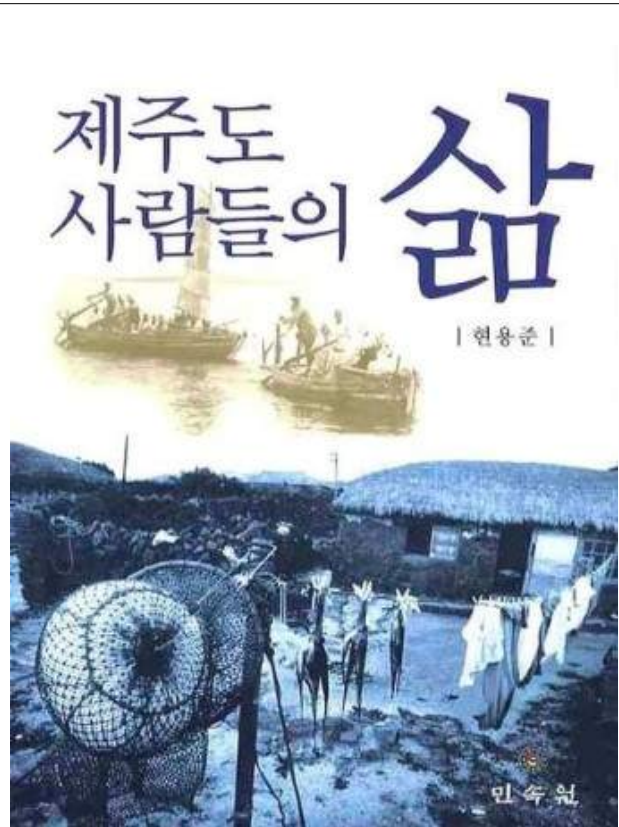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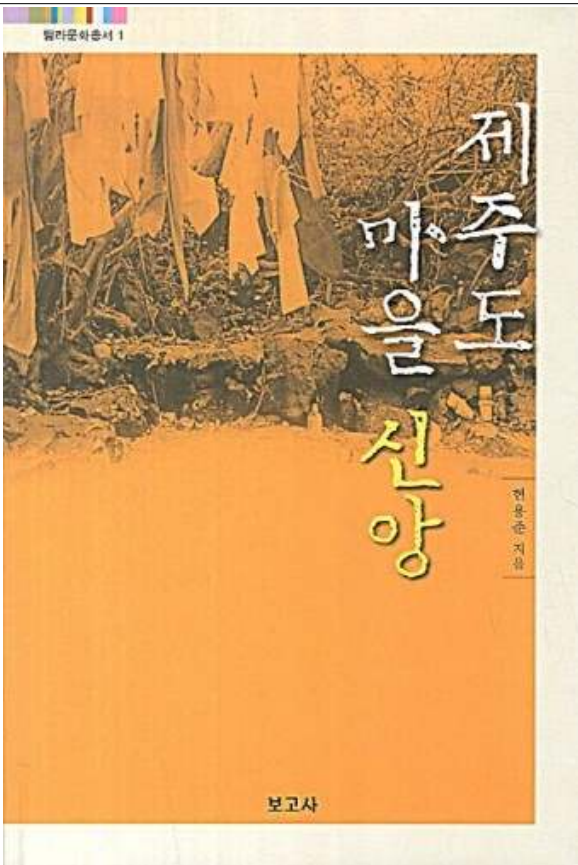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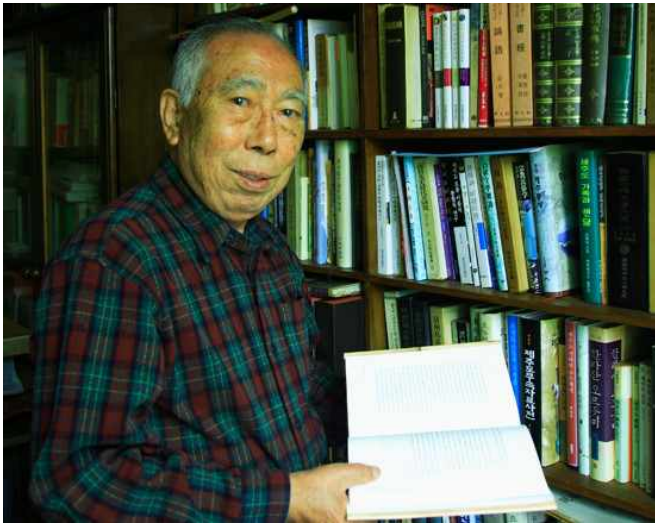
창환 昌桓, 29세.

1951년신묘(辛卯)생,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서기관, 지식경제부 서귀포 제주우체국장, 국무총리표창(1998), 녹조근정훈장(2010), 대종회 부회장

용준 容駿, 28세.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 신화·무속 연구 민속학자

1931년신미(辛未)4월25일, 일본 동경대학 사회학연구과 졸업, 사회학박사 문교부 및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주도지부장, 제주대학교 대학원장 교무처장 명예교수, 국민훈장목련장, 국민훈장동백장, 2016년에 돌아가셨다. 서 제주도신화 제주도전설 제주도민담 제주도의 민화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무속신화와문헌신화 제주도무가 한라산에 오르듯이 제주도사람들의 삶 외 다수



승환 丞桓, 29세.

1958년무술(戊戌)생, 제주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국어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소장, 제주도문화재위원, 일본 A P U 대학 방문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승희 丞禧, 29세.

1960년경자(庚子)생, 중앙대학교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KTB증권 부사장

승도 丞道, 29세.

1967년정미(丁未)생, (주)제주도자전거여행 대표이사

용찬 隆贊, 28세.

1954년갑오(甲午)생, 오현고등학교졸업, 한라일보 광고부장, 제주도친족회 청년회장, 제주도 친족회 섭외이사, 감사, (주)거승개발 대표이사, 신문협회상 수상(1990), 대종회 이사

영화 永華, 28세.

1949년기축(己丑)생, 제주도친족회장, 제주4.3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장, 영화회관 대표, 남도 교통 전무이사, 성균관유도회 제주서부지회 지회장, 제주지부 지회장협의회 회장, 제주도 총본부 부회장, 연주현씨 대종회 부회장

승헌 承憲, 29세.

1975년을묘(乙卯)생, 제주대학교 해양생산학과, 해피투어 온라인사업부 팀장

경보 景普, 31세.

1959년(60년庚子)생, 애월읍 남읍리 출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신문방송학 박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사, SBS 논설위원, 한국방송대상 특별상, 저서 <여론전쟁>, <인터넷 대격변>, 대종회 이사

창휴 昌俔, 29세.

1926년병인(丙寅)생, 주사(主事), 제주시 사회계장, 북제주군 회계계장

성수 誠洙, 30세.

1955년을미(乙未)생, 연세대졸,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국회 기획조정실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제일기획 상임감사, 황조근정훈장, 대종회 이사



상훈 尙訓, 31세.

1984년갑자(甲子)생, 제주의과대학졸, 안과의사, 가천대 의학석사

치방 致邦, 29세.

1930년경오(庚午)생, 동국대 행정대학원졸, 총무처시행 사무관전형 합격, 도지방과장, 도내 무국장, 도기획관리실장, 남제주군수, 북제주군수, 서귀포시장(이사관), 625 참전 무공수훈자, 화랑무공훈장, 녹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625참전기장



충훈 忠勳, 30세.

1952년임진(壬辰)생, 인하대학교졸, 한국컴퓨터(주) 상무이사, 대종회 이사

지수 志洙, 30세.

1954년갑오(甲午)생 전남대학졸, (주)INCOK손해사정 대표이사 사장

동훈 東勳, 30세.

1961년신축(辛丑)생, 제주상업고등학교졸, 신제주종합시장(주)상무이사, 현도공조 사장, (주)우리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광보 光輔, 22세.

방어중군, 제주향교 훈장

(1739~1826) 정희량(鄭希良)의 문하생이며 벼슬이 방어중군으로 학문을 닦으며 병술을 겸비, 제주향교 훈장을 거쳐 1771년(영조47) ‘우암유허비(尤庵遺墟碑)’를 적소였던 산지동에 세웠다.(후일 오현단으로 옮김). 1780년 김영수(金永綏)목사의 지시로 공해(公廨)(관청)를 증수할 때 도감으로 뽑혀 이를 완성했으며 양남훈(梁南訓)·송달홍(宋達弘)과 깊이 교유하였다. 월곡(月谷) 덕문(德聞)의 증조부, 월곡(月谷)도 증조부의 유업을 받들어 이를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 용담동 제주향교 대성전 전경, 향교는 인재 양성과 유교 이념을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

학로 鶴老, 23세.

훈장(訓長), 1760년(영조英祖36년)생, 영조(英祖)을사(乙巳,1785년) 찬삼을나사선액기견탐라유사(贊三乙那祠宣額記見耽羅遺事, 삼을나사 선액기를 지었다. 탐라유사에 기록이 보인다)

영오 永梧, 29세.

1907년정미(丁未)생, 제주향교 도훈장(都訓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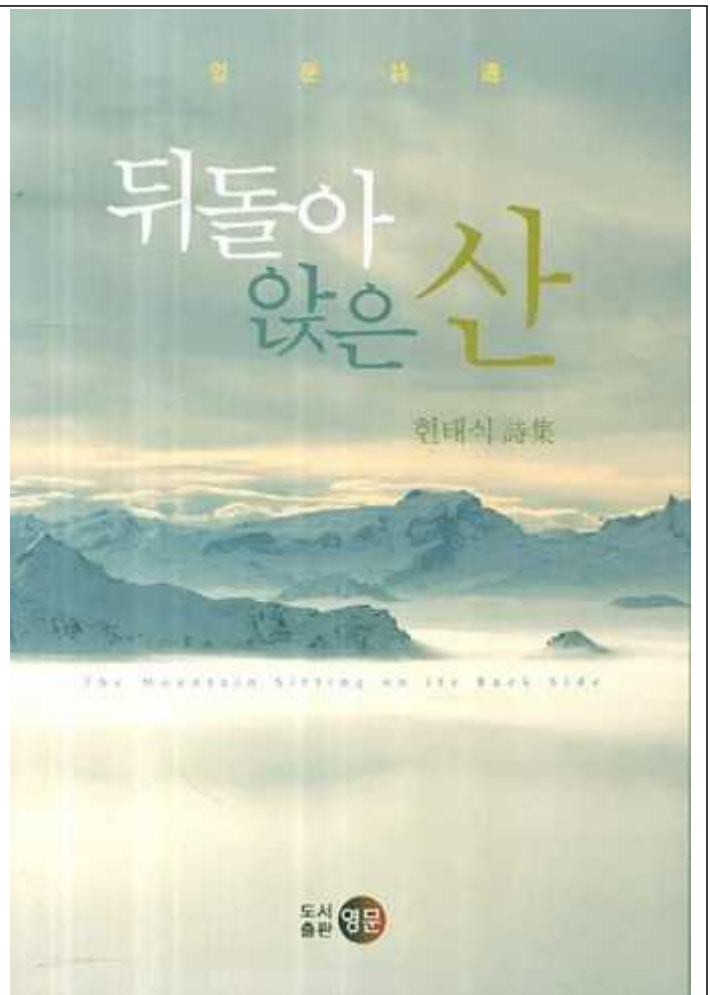
민식 玫植, 30세.

1933년생, 영오의 장남, 제주시 연동 출신, 제주사범대학교 졸업, 서예가, 서화가, 수필가, 호 라석(羅石), 서예학원 원장, 초등교사, 대한민국서예대전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서예문인 화협회 초대회장, 제민일보 논설위원, 제주수필문학회 회원, 대중회 지도위원, 제주도친족회 고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탐라문화상, 재암문화상, 대한민국 청곡문화상, 한국미술국제대전최고상 외 10여 회 수상, 저서 <구성궁예천명임서>, <라석작품집>, <청일원의 달빛>, <망상 속에서> 외 다수, 대중회 지도위원

태식 泰植, 30세.

1938년무인(戊寅)생, 영오의 3남, 제주대 행정대학원 수료, 노르웨이오슬로대학 정치과학부 연수(1997), 제주시의회의장(1991~19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장, 사회복지법인 제주도공동모금회장, 국민훈장석류장(1992, 대통령김대중), 표창장(1996, 대통령김영삼), 공로상(2005, 대통령노무현), 공로패(19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공로패(2000, 사단법인대한노인회장 안춘생) 공로상(2013, 연주현씨대종회장 현승종) 저서 <눈비바

람에도 안꺼진 촛불>, <지방의회의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행정대학원수료 논문, 1991)>
대종회 고문



철호 哲昊, 31세.

1964년갑진(甲辰)생, 제주대졸, 샤프렌올리비아하슬러 대표

근식 根植, 30세.

1940년경진(庚辰)생, 영오의 4남, 제주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한나라당 제주도당 고문, 국제와이즈맨 제주지구 총재, 대종회 부회장

기호 起昊, 31세.

1971년신해(辛亥)생, 숭실대졸, 프랑스 캐나다 유학, 제주도공무원

광식 廣植, 30세.

1943년계미(癸未)생, 영오의 5남,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수료,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원 봉사 3,500시간, 중앙고등학교장학회 이사, 제주도지사표창패(2003), 제주대학교총장 공로패(2007), 대종회 이사

관식 官植, 30세.

1945년을유(乙酉)생, 영오의 6남, 일명 안식(安植), 시인(1998년 등단)

계온 啓殷, 24세.

호 동계(東溪), 종사유림교장(從事儒林校長), 1791년정조(正祖15년)생

덕문 德聞, 25세.

일명 백승(伯升), 호 월곡(月谷), 문인, 제주향교 훈장

문인, 사례집설(四禮集說)·화동잡지(華東雜誌) 등 30여 권 저술. 1817(순조17)년생, 제주시 노형동 월랑촌에서 중군 현광보(玄光輔)의 증손으로 태어났다. 평생 학문에 힘써 한 시대의 유종(儒宗)으로 추앙을 받았다. 과거(科擧)의 행운을 얻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였다. 뒷날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도 월곡(月谷)의 저술을 보고 칭송한 바 있다. 한편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이 그의 방대한 저서에 대해 평하기를 “30여 권의 저술은 제주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나는 모든 저서를 읽지 못했으나 ‘탐라기략’을 보건대 다른 저서도 미완의 상태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1856년(철종7) 제주판관 홍경섭(洪敬燮)의 지시로 ‘귤림서원지(橘林書院誌)’를 수찬, 1868년(고종5) ‘유가선문(儒家選文)’28권을 편저하여 당시의 친구 목사인 이 후선(李後善)과 조희순(趙義純)의 서문을 게재하였다. 기타 사례집설(四禮集說)·화동잡지(華東雜誌)·탐라기략(耽羅紀畧)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진재(震齋) 이응호(李膺鎬)는 ‘중군공전(中軍公傳)’을 지어 그의 인품 됄을 소개하였다. 참판 이병관(李柄觀)의 찬양문도 있다. 지금 책이 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문헌이 존재하던 것이 1948년 4·3사건으로 전소된 것이 아닌가 보아진다. 고종(高宗)기사(己巳, 1869년)졸, 묘 노형리 고사지 병좌, . 족보의 기록을 보면, [호학동행수집유유가선문이십팔권주목이후선조의순병](#)

작서문함칭전아우유탐라기락교림원지사례집설화동잡지등합사책저술위남주유종사건삼강유행
 편급호지여람(好學敦行搜集有儒家選文二十八卷州牧李後善趙義純并作序文函稱傳雅又有耽羅
 記略橋林院誌四禮集說華東雜誌等合四冊著述爲南州儒宗事見三綱儒行篇及湖誌輿覽,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이 돈독했다. 유가의 글중 좋은 글 28권을 모아 제주목사 이후선, 조의순과
 함께 서문을 지었다. 편지글이 아름답게 전해진다. 또 탐라기락, 교림원지, 사례집설, 화동
 잡지 등 모두 4책을 저술하여 남제주 유교의 종사로 행사했다. 삼강유행편과 호지여람에 기
 록이 보인다). 진재이응호찬행장향천행의보국병석참판이병관유찬양문(震齋李鷹鎬撰行狀鄉薦
 行義輔國柄奭參判李炳觀有讚洋文. 진재 이응호가 행장을 지었다. 고을에서 행의보국으로 추
 천했다. 병석참판 이병관이 지은 큰 바다를 찬양하는 글(讚揚의 오타?)에 있다.)

병묵 炳默, 26세.

일명 공저(公著), 호 풍은(豐隱), 1855년(철종(哲宗)6년)생, 감향사(監鄉社;고을 제사를 감독
 하는 직책)

창익 昌翊, 30세.

1956년병신(丙申)생, (주)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 제주도친족회 청년회장, 대종회 부회장

임종 林鍾, 28세.

1934년갑술(甲戌)생, 제주시 노형동 출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김유비장학회 이사,
 대종회 고문, 제주도친족회 명예회장, 6.25참전 유공자, 수필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제
 주지점장, 서울중부지점장, 감사실장, 신제주 로타리클럽 초대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대통령 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 저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續: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봉수 鳳壽, 29세.

1961년신축(辛丑)생, 한국 외국어대 졸업, 제일기획 상무, 대종회 이사

종화 宗和, 30세.

1988년무진(戊辰)생, 중앙대 졸업, 신한은행 행원

봉식 鳳式, 29세.

1963년계묘(癸卯)생, 홍익대 졸업, 하나증권 부장

요안 要安, 29세.

1970년경술(庚戌)생, 광주 가톨릭대 졸업, 천주교 신부, 제주교구 가정사목위원장, 한국청년대회 총기획팀장



세례를 받은 다문화가정 자녀 11명과 가족들이 제주교구 서귀포본당 주임 현요안 신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5.8.1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와 사무처장 현요안 신부가 1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갯바위에서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재현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2021.3.13.)

미혜 美惠, 29세.

1967년정미(丁未)생, 제주대 졸업, 제주시청 공무원

승규 升圭, 27세.

1870(고종7)~1941년, 제주 유림의 반수(班首). 제주향교 직원(直員). 초명은 현승림(玄升琳). 자는 공유(貢惟), 호는 월계(月溪). 제주시 노형동, <무름> 월랑촌에서 태어났으며 해방 후 제주중학교 초대 교장 현경호의 아버지다. 처음은 영운(靈雲) 고경준(高景駿)에게 글을 배우고 나중에는 도은(桃隱) 김일해(金日海)에게 수학했다. 1918년 유림을 움직여 제주향교 대수선 사업을 수창해 이를 완성했다. 무오창유의연금대수교궁사건향교게판(戊午倡儒義捐金大修校宮事見鄉校揭板), 천성이 어질고 효우(孝友)를 겸비하며 경전(經典)에도 밝아 사림에서 존경을 받았다.

경호 景昊, 28세.

제주중학원 개설, 제주중학교 초대 교장· 제주도민전 의장단 추대

1894(고종31)~1948(분단시대), 호는 우계(又溪), 초명은 현인종(玄仁宗), 제주향교의 영수인 직원(直員)이던 현승규(玄升圭)의 장남, 제주읍 노형리 월랑동에서 태어났다. 오랫동안(1936~1945) 제주향교의 직원(直員)을 역임, 1945년 유림을 규합하여 향교 경내에 제주중학원(濟州中學院)을 개설, 1946년에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1947년에는 제주도민전 의장단(議長團)에 추대되었다. 1947년 2월 17일 제주도 3·1절기념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날 읍내 김두훈(金斗勳) 댁에 인사들은 준비위원장에 안세훈(安世勳), 부위원장에 현경호와 오창흔(吳昶欣)을 추대한 후 위원 28명을 선정하였다. 1919년 제주농업학교에 입학해 2학년 때 그만두고, 1924년 향리에 의성학숙(義成學塾) 개설하여 노력했다. 이에 앞서 그는 1919년 제주농업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을 수료하고 1924년 2월 노형동에 의성학숙(義成學塾)이 개설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계수교궁중축외성사건향교게판(溪修校宮重築外城事見鄉校揭板)라고 제주중학교 교정 모퉁이에 있는 현경호(玄景昊) 송덕비에 있다.

필호 弼昊, 28세.

호 중계(重溪), 1910년경술(庚戌)생, 생부 승규(升圭), 제주해운항만청장, 제주도친족회 회장, 경신보(족보) 발간.

후길 厚吉, 29세.

호 다봉(多峰), 1947년정해(丁亥)생, 경영학박사, 관세사(부이사관) 울산제주세관장, 부산경남본부세관 감시국장, 연주현씨 제주거로파(巨老派)친족회회장, 홍조근정훈장대통령표창 수상, 대종회 부회장

한나 漢拏, 30세.

1975년을묘(乙卯)생, 연세대 치의대 졸업

경대 敬大, 28세.

제11·12·14·15·16대 국회의원, 제6대 연주현씨대종회장

1939년기묘己卯2월21일생, 법무부 검사, 제11·12·14·15·16대 국회의원,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소영 昭榮, 29세.

1970년경술(庚戌)생, 음악학 박사, 홍익대 겸임교수

소혜 昭惠, 29세.

1974년갑인(甲寅)생, 법학박사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계호 桂浩, 30세.

호 소담(素潭), 1921년신유(辛酉)생, 서예가, 대한민국 서예대전 수회 입상, 북제주교육청 과장, 제주도친족회 회장 역임, 천일목재사 대표, 성일운수(주)회장, 삼진운수(주) 회장

인환 仁煥, 31세.

1951년신묘(辛卯)생, 서울대학교 공대졸 동(同)대학원 공학박사,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교수, 공과대학 학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인택 仁澤, 31세.

1954년갑오(甲午)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졸, 미국UCLA 정치학박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35대 통일부장관, 대통령통일정책 특별보좌관, 대중회 고문



남북청소년 통일한마당' 참석(2009.5.6.)



인규 仁圭, 31세.

1957년정유(丁酉)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 동(同)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유통경영학회 회장

승옥 升玉, 28세. 자 계평(癸平)

(주)대명건설 대표, 제2~5대 제주도친족회장, 한시집(漢詩集)

호 양암(陽菴), (株)대명건설 대표, 제주도친족회 창립, 제2~5대 회장 역임. 1903(광무7)~1987, 문인, 호는 양암(陽菴), 제주시 이도동(서-과양)에 태어나 평생 살면서 의병참모 김석윤(金錫允)을 사사하며 한시를 배웠다. 길성운(吉聖運) 도백 당시 도백부인이 현(玄)씨로 실향민이란 점을 이해하여 현계평은 먼저 연주현씨 제주도총친족회를 창립하여 초대 부회장, 이어 제2대-제5대까지 회장으로 역임하였다. 전 청와대 미래경제부 수석비서관 현대원(玄大原)(1964~)의 조부

학철 學哲, 29세.

1933년계유(癸酉)생, 제주대학 법학과졸, 중등학교 교장, 탐라교육원 원장, 대한민국미술서예대전 입선, 국민훈장동백장 수상

대진 大振, 30세.

학철의 장남, 1958년생, 제주대학교 경영대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고려회관 대표,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감사, 고려예식장 대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제주도친족회 총무이사, 제주시 청년회 초대회장. 대종회 부회장

대근 大根, 30세.

학철의 차남, 1961년신축(辛丑)생, 고려대 교육대학원졸, 석사 고등학교 교사

대원 大原, 30세.

학철의 3남, 1964년갑진(甲辰)생, 제주일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 졸업.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정책학으로 언론학 박사학위, 오리건주립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과 산업의 융합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답게 고향 제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학자이면서도 시대의 흐름과 실무에 밝은 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제주를 스마트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창업 붐이 일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신바람 나는 새로운 경제엔진이 작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서 ‘디지털미디어혁명과표준전쟁’



학권 學權, 29세. 대중회 지도위원

1938년무인(戊寅)생, 제주대학 수의학과 졸, 수의사, 제주자치도 지방축산서기관

대훈 大訓, 30세.

1972년임자(壬子)생,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졸업 학사,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

영봉 永鳳, 30세.

1930년경오(庚午)생, 이장(里長), 해병3기, 625참전, 인천상륙작전 참가, 화랑무공훈장

상돈 相敦, 30세.

1962년임인(壬寅)생, 용담동 장애인지원회장, 복지협의체위원장,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 감사, 백산인쇄소 대표, 제주도지사표창 2회

용하 龍河, 31세. 1987년정묘(丁卯)생, 제주대학교 법학사, 경찰공무원

창하 昌廈, 29세.

1939년기묘(己卯)생, 경희대 중퇴, 대종회 부회장, 제주도친족회 자문위원, 제주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우회장, 경우회와 4.3유족회 화해 합의 체결, 로타리3662지구 임원 및 클럽회장,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 저서 <경우지> 발간 등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오른쪽)과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장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2018.2.11.)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67주기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구성지 제주의회의장,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장, 정문현 4·3희생자유족회장(이상 왼쪽부터)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20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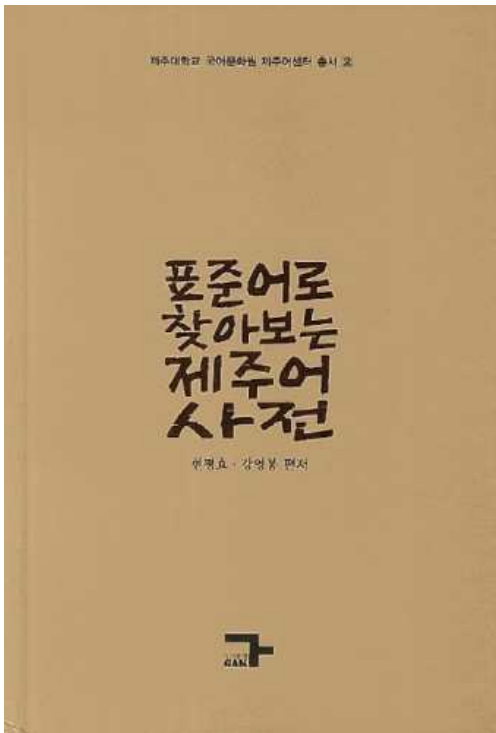
2013년 제주4.3유족회와 경우회가 손을 맞잡고 화해와 상생을 선언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근택 根宅, 30세. 1971년신해(辛亥)생, 서울대졸, 변호사,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원시 제2부시장

평효 平孝, 27세, 국어학자, 초대 제주대학교총장

1920년경신(庚申)8월16일생, 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초대총장, 국민훈장 수상, 연주현씨(延州玄氏) 제주친족회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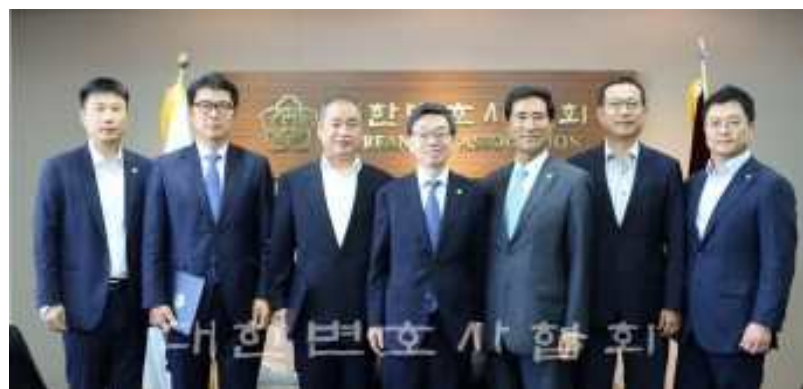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
 - 그의 삶과 학문

2020. 8. 5.(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제주대학교 아라컨선홀(옛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13:30~14:00	등록	사회: 김보람(제주대학교 강사)
14:00~14:20	개회식	강명봉(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축사	송석만(제주대학교 총장)
제1부 연암의 삶		
	학장: 김태일(전 서귀포대학교장)	
	연암의 삶	강명봉(제주어연구소 이사장)
14:20~15:00	연암과의 추억	김명태(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아버지에 대한 회고	원천옥(연호사, 연암의 가족)
휴식(15:00~15:20)		
제2부 연암의 학문		
	학장: 강영종(한 제주학진흥사업)	
	음운 분야 연구	정승철(서울대학교 교수)
15:20~17:00	문법 분야 연구	강정희(한남대학교 명예교수)
	어휘 분야 연구	김순자(제주학연구소장)
휴식(17:00~17:20)		
종합 토론		
	좌장: 고창균(제주어연구소 이사)	
	김미진(제주학연구소장 전문연구원)	
17:20~18:00	김성룡(귀일중학교장)	
	문덕찬(전 노원중학교장)	
18:30~	만찬	

주최: 제주대학교, 제주학진흥사업,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천욱 天旭, 28세, 1953년계사(癸巳)생 서울대 법대졸 미국하버드대 법과대학
 원 수료 윤연합동법률사무소 국제상거래전문변호사 미국뉴욕주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대중회 부회장





대영 大永, 28세, 1939년생, 대영목장 대표, 대종회 부회장

영화 永華, 28세, 1949년생, 영화회관 대표, 제주친족회 회장, 대종회 부회장

탁하 卓河, 29세, 1957년생, 제주에너지 대표, 대종회 부회장

동관 東官, 30세, 1957년생, PAM로지스 대표, 대종회 부회장

진수 珍壽, 30세, 1951년생, 제주친족회 부회장, 대종회 부회장

공화 孔和, 30세, 1942년생, 경우회 제주서부지회장, 대종회 부회장

창보 彰保, 30세, 1940년생,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종회 부회장

영두 榮斗, 30세, 1943년생, 제주지방법원장, 대종회 부회장

병주 炳周, 30세, 1958년생, 현대디지텍코어 대표, 대종회 부회장

창택 昌澤, 30세, 1957년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종회 부회장

석훈 錫薰, 31세, 1947년생, 경일산업 대표, 대종회 부회장

승탁 丞倬, 31세, 1946년생, 제주도의회 의장, (주)한라산 대표, 대종회 부회장

창종 昌宗, 32세, 1957년생, 광장노무법인, 대종회 부회장

승호 承浩, 28세, 1959년생, 대종회 이사

익하 翊河, 29세, 1939년생, 제주시의원, 대종회 이사

병국 炳國, 29세, 1942년생, TPS 대표이사, 대종회 이사

성호 成鎬, 29세, 1951년생, 대종회 이사

익주 益柱, 30세, 1935년생, 서예가, 대종회 이사

병희 柄熙, 30세, 1948년생, 대종회 이사

한수 漢洙, 30세, 1948년생, 북제주군 부군수, 대종회 이사

명운 明云, 30세, 1955년생, 한국전력공사 근무, 대종회 이사

창국 昌國, 30세, 1962년생, 한국신문윤리위 심의위원, 대종회 이사

권익 權益, 30세, 1966년생, 기업은행 부행장, 대종회 이사

영민 榮敏, 30세, 1968년생, 대종회 이사

대홍 大弘, 31세, 1947년생, 대종회 이사

동수 東壽, 31세, 1960년생, 대종회 이사

18-2 제주목사공 신산파(神山派)

사경 思敬, 9세, 제주목사공파 중시조, 제주목사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계파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명종대	德秀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仁烈인렬 文科문과	禹圭우규 主簿주부	瓊찬 進士 진사	應和응화 進士진사	伯元백원 文科문과	佑仁우인 進士진사	思敬사경 濟州牧使 조선태종대 (1400-1410 년)	1자 壽仁수인 수익교위 修義校尉 2자 富仁부인 3자 貴仁귀인 禦侮將軍 어모장군	濟州巨老派 제주거로파 濟州神山派 제주신산파 濟州洋衣幕派 제주양의막파

9세 사경(思敬)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도임했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시기는 태종[1400-1410] 때로 보인다. 사경(思敬)의 3형제 중, 장남 수인(壽仁)은 제주 거로(巨老)에, 둘째 부인(富仁)은 남원(南元)에, 막내 귀인(貴仁)은 성산(城山)에 자리를 잡고 후손을 늘려갔다. 사경(思敬)의 차남 부인(富仁) 후손들을 목사공 신산파(神山派)라 부른다.



부인 富仁, 10세, 입도조(入道祖) 사경(思敬)의 차남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富仁부인	1 釘 정	1 稷 직	1 克貞 극정	1 碩哲 석철	1 傑 걸	2 溫世 온세	2 鳳元 봉원	1 德升 덕승	1 潤瞻 윤첨	1 道完 도완	2 載普 재보	
											4 載久 재구	
							3 鳳幹 봉간	1 德敏 덕민	2 后益 후익	2 致伯 치백	1 道任 도임	

									4 鳳守 봉수	2 承弘 승홍	1 振逸 진일	2 致峻 치준	1 道祥 도상
													2 道禎 도정
												3 起峻 기준	1 雲伯 운백
													4 雲景 운경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2 載普 재보	1 英殷 영은	1 尙忠 상충	1 啓洛 계락	1 大坤 대곤	1 維純 유순	1 圭錫 규석	1 齡還 영환	1 鶴千 학천				
					2 以坤 이곤	1 維亨 유형	2 晉錫 진석	2 齡道 영도	4 鶴三 학삼	1 星潤 성운			
			3 尙牧 상목	1 佑標 우표	1 慶福 경복	1 明範 명범	1 四維 사유	1 洪錫 홍석	1 應祐응우 응호應祐	1 南一 남일			
			4 尙伯 상백	1 日勳 일훈	1 興福 흥복	1 明哲 명철	1 四亨 사형	1 元錫 원석	3 化珍 화진	1 琬松 완송	1 政勳 정훈		
										3 琿松 수송			
		2 貴殷 귀은	1 宇宗 우종	1 啓河 계하	2 應舜 응순	1 致乙 치을	1 始奎 시규	1 正均 정균	3 昌禹 창우	1 公南 공남	1 知洹 지원	1 到廈 도하	
					3 以舜 이순	2 致圭 치규	1 仁玉 인옥	1 榮斗 영두	1 文必 문필	1 守彦 수언			
										2 吉彦 길언	1 茂晟 무성		
	4 翼殷 익은	1 尙喆 상철	1 啓一 계일	2 重佑 중우	1 維興 유흥	1 圭攝 규섭	2 才平 재평	3 鶴淳 학순	1 宗錫 종석				
			3 啓伍 계오	1 重儉 중검	1 維弘 유홍	3 陞奎 승규	2. 應文 응문	2. 聖日 성일	1. 京學 경학	1. 竣赫 준혁			
							5 應斗 응두	1 聖模 성모	1 棟鶴 동학	1 一訓 일훈			
									2 雲鶴 운학				
4 載久 재구	1 祚殷 조은	1 命豪 명호	1 啓洙 계수	1 恒舜 항순	3 章斌 장빈	1 昌洪 창홍	1 元卓 원탁	1 英敏 영민	1 宗晉 종진	1 敏俊 민준			
1 道任 도임	1 萬甲 만갑	1 命殷 명은	1 光云 광운	1 日昇 일승	2 宗寬 종관	1 圭浩 규호	1 應鶴 응학	4 麗壽 여수	2 愛子 애자				
1 道祥 도상	9 益明 익명	3 重○ 중○	1 嚴太 엄태	1 永九 영구	1 戊春 무춘	1 文叔 문숙	1 昌國 창국	1 聰一 총일					
2 道禎 도정	1 益寬 익관	1 有龍 유룡	1 彦宗 언종	1 悌坤 제곤	1 義儉 의검	1 在權 재권	3 太憲 태헌	1 仇祚 광조	1 東勳 동훈	1 臣赫 신혁			
1 雲伯 운백	1 益全 익전	1 仁健 인건	1 義賢 의현	1 繼孝 계효	1 應源 응원	1 箕範 기범	1 景厦 경하	1 熹順 희순	2 用珍 용진	1 在然 재휴	1 謹竣 인준		
4 雲景 운경	1 仁完 인완	1 重孝 중효	1 賢祿 현록	1 成古 성길	1 宗儉 종검	3 維殷 유은	2 始公 시공	3 啓文 계문	4 商集 상집	1 大嘩 대엽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유순 維純, 26세, 1832년(순조32)생, 유생. 정의향교의 도훈장(旌義鄉校 都訓長). 서교(천주교)에 반기를 들어 신축민란(辛丑民亂)의 원인을 제공했다. 서귀포시 신희<새-쉐둔>에서 이재를 일으켜 향공진사(鄉貢進士)가 되었다. 말솜씨가 뛰어나고 재주 있는 해학으로 유명, 한때 제주 명사 신재운(조천), 이기용(오라) 등과 어울려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말과 문구를 교환하였다. 정의향교 훈장을 역임하면서 교임을 맡아 후진을 교육하고 사람됨이 건장하고 훌륭해 사림의 영수로 추앙받던 인물이다. 1901년 2월 그가 반천주교 활동을 전개하자 천주교 신자 오달현, 오창우 등 신도들은 그의 주택을 파손시켰다. 또 천주교도에 의해 현 유순과 그의 아들 현규석(일부 사료에는 부친이라 하나 족보상 아들이 분명함), 또 오신락(장의 掌議: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임원) 등 세 사람이 정의성당에서 폭행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일로 오신락이 죽자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문제됐다. 한편, 대정군 상무사(大靜郡 商務社: 제주 대정군내 유지들이 오리汚吏와 불량한 천주교도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에서 오신락의 죽음을 조사하고자 검서관 대정군수 채구석, 그 배석자 이재수 등이 시체를 확인했다. 이 일로 대정상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림들은 반서교, 반외세를 표방하면서 신축민란을 재촉하는 결과가 됐다. 1901(광무5)에 돌아가셨다. 족보에 위용덕기지혜과인일세영웅만세유전(偉容德器知慧過人一世英雄萬世遺傳)라고 기록되어 있다.

규석 圭錫, 27세, 1851년신해(辛亥)생 도훈장(都訓長), 천문학자(1846년생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부친과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1851년생이라 여겨짐. 1915년 사망)

현일문(玄日汶), 일명 현규석, 통칭 현천문이라고 불렸다. 천문학·풍수지리학·한방의학 등의 학문을 익혔다. 호는 동은. 애월읍 납읍리<과납>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마을의 김용징에게 글을 배우고 나중에는 영운 고경준에게 배웠다. 만년에는 제주시 노형동<마름> 월산마을 동쪽 은동산으로 옮겨 천문학·풍수지리학·한방의학 등 그에 관한 지식을 넓혔다. 여가에는 스승 고경준을 모시어 깊이 학문을 익히고 문우들과 어울렸다. 오라리의 학자 이응호는 ‘동은 전기(洞隱傳記)’를 지어 그의 개성 있는 발자취를 기록했다. 저술에 ‘지리관건(地理關鍵)’이 있다. 이런 기록과 문헌은 모두 4·3사건으로 회신되었다. 출처 :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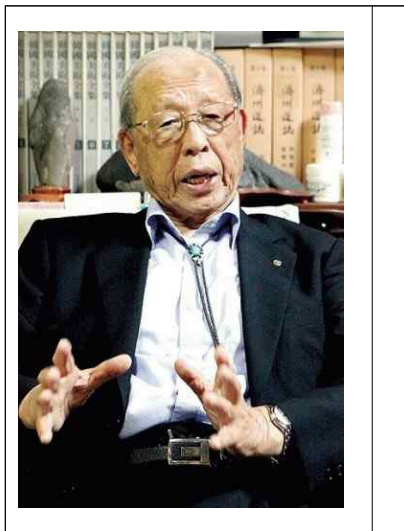
영환 齡還, 28세, 1891년신묘(辛卯)생. 장의(掌議)

응우 應祐(응호應祐), 29세, 광복 이후 전남 보성군 교육구 초대 교육감 당선

1894년갑오(甲午)생,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가스름>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던 현홍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정의공립보통학교를 거쳐 관비 유학생으로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를 졸업하였다.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물리학교(현 히토쓰바시 대학(一橋大學))를 졸업했다. 1912년 4월 전남 보성보통학교 부훈도를 거쳐 1918년 모교인 정의보통학교 교사로 부임, 당시 교장 미네-만조와 교사 이화옥 등 세 사람만이 재임했다. 1922년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보통학교 수석교사로 발령받아 말석으로 부임한 이봉춘(보목)과 함께 향수를 달랬다. 그는 1939년 오지학교인 여수군 삼일면에 있는 중흥심상소학교 부설 하도간이 학교로 전출돼 여러 해를 보냈다. 이는 중일전쟁으로 일제의 황민화교육의 강화에 따른 그의 민족주의적인 저항심과 최고 학부를 이수한 지식인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협조가 미온적인 데서 온 조치였다. 1945년 조국이 광복된 후 완도중학교 교장을 거쳐 1952년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자치제가 실시하게 되자 보성군교육구 교육감에 입후보하여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관립 경성고보의 사범과는 한성사범학교의 후신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관제에 의해 설립한 최초의 관학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다.

화진 化珍, 29세, 1928년무진(戊辰)생, 고등학교장, 제주도 교육연구원장,교육위원회 의장, 국민훈장동백장, 제주도문화상,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완송 琬松, 30세, 1952년임진(壬辰)생, 제주대 사범대학교수, 문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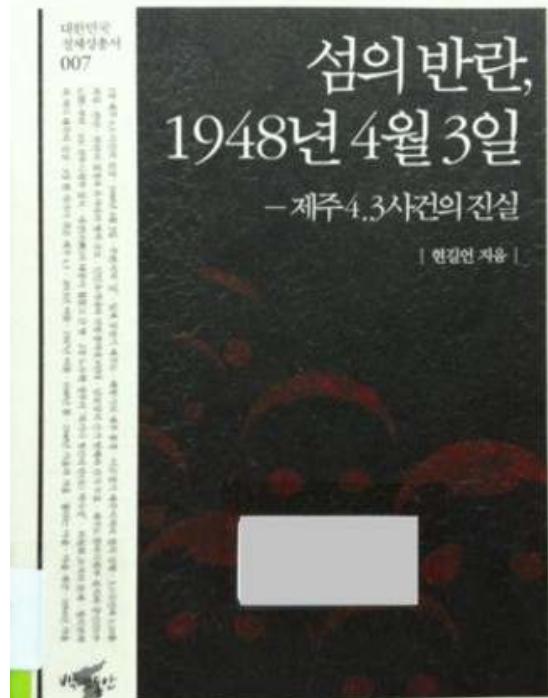
수송 琇松, 30세, 1959년기해(己亥)생, 제주도청 서기관(書記官), 이학사(理學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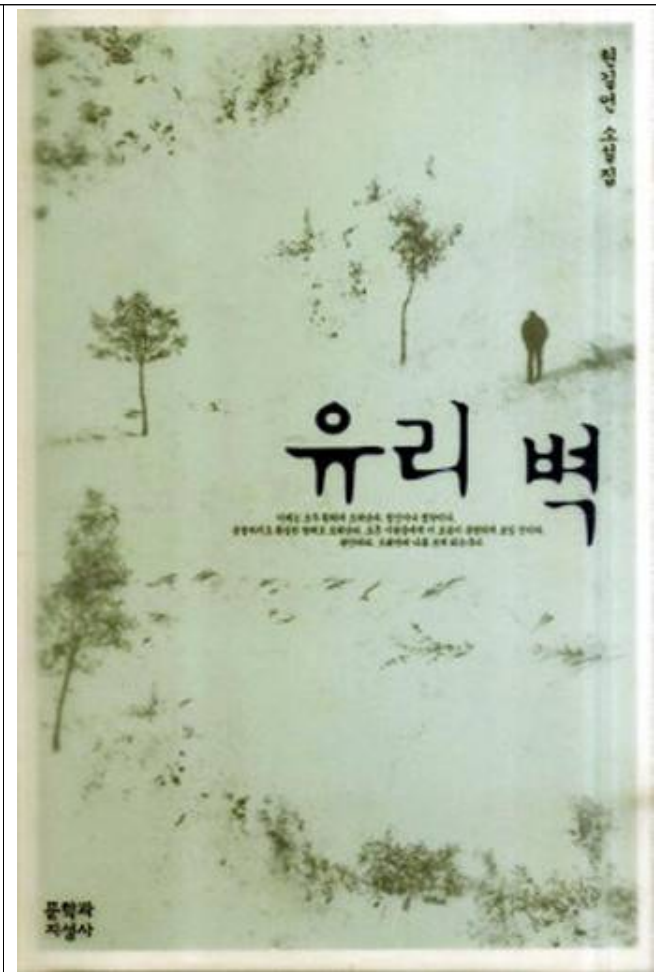
공남 公南, 30, 1946년생(父: 玄昌禹), 남원읍 수망리 출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석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산업응용경제학

과), 저서 :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연구> 외

수언 守彦, 30세, 1935년을해(乙亥)생, 초등교 교장

길언 吉彦, 30세, 1940년경진(庚辰)생. 남원을 수망리 생, 제주대·한양대 교수, 문학박사, 제주 역사 조명한 소설가, 현대문학상, 녹색문학상 수상. 작품집 ‘유리벽’, ‘누가 그 섬에 갈 수 없을까!’와 장편 ‘숲의 왕국’을 비롯해 ‘문학과 성경’, ‘인류역사와 인간탐구의 대서사’, ‘국가권력과 역사왜곡’ 등의 저서가 있다. 2020년에 돌아가셨다.





학순 鶴淳, 29세, 1934년갑술(甲戌)생, (부: 玄才平), 서귀포시 출신, 제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중등교사 자격증, 제주대학교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경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제주도교육위원, 제주도 선원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제주경제개발연구소 연구소장, 제주도친족회 고문, 상훈: 국민훈장 목련장, 황조근정훈장, 저서 <경영학론>

경학 京學, 30세, 1965년생(父: 玄聖日), 표선면 세화리 출신,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졸업, 공학박사(Ph.D.), 환경정의 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객원교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심사위원, 저서 <토양정화를 이용한 잡배수활용 기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오수 고도 처리수 활용 방안>

성모 聖模, 29세, 생부 응숙(應琇), 1938년무인(戊寅)생, 제주대학교 상학과졸, 중등교사 자격 취득, 제주장학재단 이사, 평통자문위원, 한라특수유 대표, 연주현씨제주도친족회장, 연주현씨 대종회 부회장, 고문

동학 棟鶴, 30세, 1970년경술(庚戌)생, 제주대학졸, 한라윤활유

운학 雲鶴, 30세, 1970년경술(庚戌)생, 제주대학교졸, 제주도청 근무

영민 英敏, 29세, 1949년기축(己丑)생, 미시간대학 졸업, 영문학박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종진 宗晉, 30세, 1976년병진(丙辰)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애자 愛子, 30세, 1961년신축(辛丑)생, 국회의원 민노당



단식 현애자 의원 찾은 한명숙 전 총리(2007.7.2.)



FTA 반대 삼보일배(2006.11.20.)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38일째 쇠사슬 투쟁(2011.8.31.)

문숙 文叔, 27세, 1922년임술(壬戌)생, 일본 경도대학 철학과 졸업

창국 昌國, 28세, 1960년경자(庚子)생, 동경예술대 조각과 졸업, 조각가

광조 尙祚, 29세, 1934년갑술(甲戌)생, (주)아산렌트카 회장

동훈 東勳, 30세, 1959년기해(己亥)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변호사, 서울 서대문구청장, 한나라당 당무위원 겸 법률행정위원, 세레명 안드레아



희순 熹順, 29세, 1908년무신(戊申)생, 향교훈장(鄕校訓長)

용진 用珍, 30세, 1937년정축(丁丑)생, 감정평가사, 군(郡)농협 상무, 대종회 지도위원

상집 商集, 30세, 1960년경자(庚子)생, 협성정밀 대표, 대종회부회장

창택 倉宅, 29세, 1972년생,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근무, 대종회부회장

상진 尙眞, 30세, 1947년생, 초등학교교장, 대종회부회장

봉철 鳳哲, 30세, 1948년생, 현봉철 태권도장학재단 이사장, 대종회부회장

성욱 成旭, 30세, 1956년생, 치과의원 원장, 대종회 부회장

우범 又範, 28세, 1950년생, 제주도의원, 대종회이사

덕립 德立, 29세, 1947년생, 대종회이사

봉오 鳳五, 29세, 1954년생, 행정공제회사업 이사장, 대종회이사

성호 成鎬, 30세, 1949년생,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대종회이사

용행 龍幸, 30세, 1956년생, 제주신산파 종친회장, 대종회이사

정훈 定運, 31세, 1953년생, 제주친족회 부회장, 대종회이사

승협 承協, 31세, 1963년생, 대종회이사

승훈 又範, 31세, 1970년생, 고려대학교 교수, 대종회이사

재준 在濬, 31세, 1972년생, 대종회이사

영조 永造, 32세, 1939년생, (주)패션브릿지 대표, 대종회이사

18-3 제주목사공 양의막파(洋依幕派)

사경 思敬, 9세, 제주목사공파 중시조, 제주목사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계파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 명종대	德秀덕수 상서공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仁烈인렬 文科문과	禹圭우규 主簿주부	瓚찬 進士 진사	應和응화 進士進士	伯元백원 文科문과	佑仁우인 進士進士	思敬사경 濟州牧使 조선태종대 (1400-1410 년)	1자 壽仁수인 수의교위 修義校尉 2자 富仁부인 3자 貴仁귀인 禦侮將軍 어모장군	濟州巨老派 제주거로파 濟州神山派 제주신산파 濟州洋衣幕派 제주양의막파

9세 사경(思敬)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도임했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시기는 태종[1400-1410] 때로 보인다. 사경(思敬)의 3형제 중, 장남 수인(壽仁)은 제주 거로(巨老)에, 둘째 부인(富仁)은 남원(南元)에, 막내 귀인(貴仁)은 성산(城山)에 자리를 잡고 후손을 늘려갔다. 사경((思敬)의 3남 귀인(貴仁) 후손들을 목사공 양의막파(洋衣幕派)라 부른다.



귀인 貴仁, 10세, 입도조(入道祖) 사경(思敬)의 3남, 어모장군(禦侮將軍)

*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선 시대 서반 정3품 당하관의 품계명. 서반 당하관으로서는 최고의 품계(品階)이므로 동반 당하관의 최고 품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와 더불어 계궁(階窮)으로도 표현되었음



귀인(貴仁) 묘소와 제주양의막파(齊州羊衣幕派) 묘역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貴仁귀인 禦侮將軍 어모장군		德孫덕손		奉當봉당		美미		尙好상호		仲根중근 전력부위 展力副尉		漢亨한형		1 仲중		1 義奉의봉		應逸응일		泰益태익		2. 歙 교	
																						3. 崙 운	
																						4 隆용	
																4 義良의량		1 應益응익		1 德雄덕웅		1 世基세기	
																5 義浩의호		應成응성		泰林태림		萬珍만진	
														2 仲禮중례		1 男남		1 奉敏봉민		2 祥雲상운		3 殷昌은창	
														3 仲林중림		1 大奉대봉		1 得浩득호		1 承雲승운		1 時煥시환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2. 歙 교	1 雲和 운화	5 敏集 민집	4 尙協 상협	1 才用 재용	2 彭根 팽근	6 和奉 화봉	2 昌勳 창훈		1 政祐 정우				1 昇彬 승빈										
3. 崙 운	1. 道 萬도만	3. 龜 海구해	1. 以 普이보	2. 光 範광범	1. 明 洽명합	1. 才七 재칠	1. 玉斗 옥두		1. 由出 유출				1. 榮植 영식		1. 宰誠 재성								
4 隆용	3 寶勳 보훈	1 貞寬 정관	1 以伯 이백	1 明洛 명락	2 日孝 일효	1 仁平 인평	4 禹萬 우만		4 行福 행복				1 又衍 우현										
		3 孝寬 효관	仁宗 인종	尙屹 상흘	明元 명원	永道 영도	오봉梧鳳 6선국회의원		哲壽철수 대종회부회장														
									왕수王壽 제주장학재단이사장														
1 世基 세기	1 允成 운성	1 處集 처집	1 日燮 일섭	1 明隆 명릉	1 宗伯 종백	1 朝弘 조홍	2 昌旭 창욱		1 麗七 여칠				1 權平 권평		1 泰俊 태준		2 古雄 길웅		3 惠慶 혜경				
						2 祉弘 지홍	1 昌完 창완		1 麗鳳 여봉				1 才琳 재림		1 長壽 장수		4 寬頌 관송		1 海雄 해웅				
					2. 宗 順 종순	1. 仁澤 인택	1. 昌鉉 창현		1 麗芳 여방				2 明官 명관		1 尙訓 상훈								

萬珍 만진	穎輔 영보	益範 익범	昌殷 창은	啓昊 계호	尙遠 상원	至濬 지준	中和중화 서예가,소암	餘慶여경				
3 殷昌 은창	1 武伯 무백	1 德寬 덕관	3 道元 도원	1 光珠 광주	3 宗順 종순	1 日體 일체	1 致孝 치효	2 甲奉 갑봉	2 時行 시행	1 斗輪 두륜	1 明峻 명준	
1 時煥 시환	1 泰岫 태수	2 萬億 만억	1 繼光 계광	2 奉天 봉천	2 龍興 용흥	1 載得 재득	1 明仁 명인	1 聖翊 성익	1 珉豪 민호	1 知尙 지상		
									2 珉哲 민철			
									3 珉奎 민규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창훈 昌勳, 28세, 1940년경진(庚辰)생, 경희대학교졸업, 보안사 제주지구대, 국방과학연구소, (주)성창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 한라CC 대표, 대중회 부회장

정우 政祐, 29세, 1974년갑인(甲寅)생, 광운대학교 졸업, 광운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삼성 전자 재직

영식 榮植, 30세, 1951년생, 인하전문대 건축과 졸업, 염돈주유소 대표, 서호초등학교 총 동문회장, 서귀포 남시연합회장, 서귀포 친족회장, 대중회 부회장, 제주도 친족회 양의막파 회장, 저서 <별을 따라가라>(수필집)

재성 宰誠, 31세, KBS제주 프로듀서, 1978년무오(戊午)생 <정원의 발견>, <지구의 정원사>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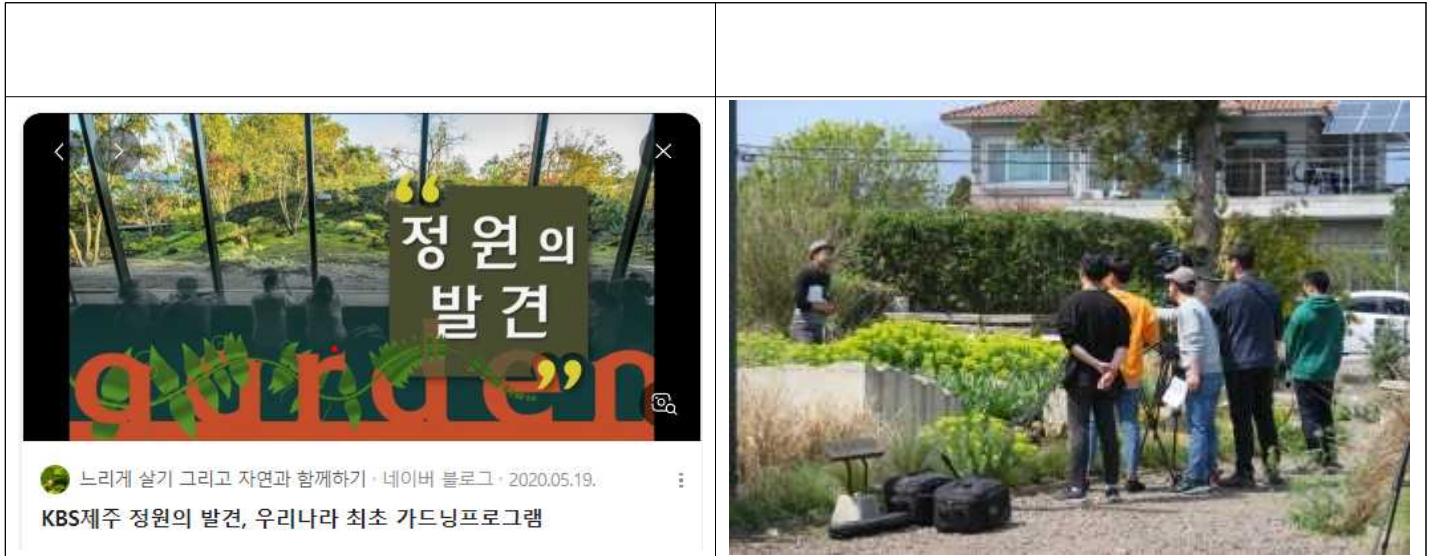
김장훈정원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0.04.21.

제주KBS 정원의발견, '봄의 가드닝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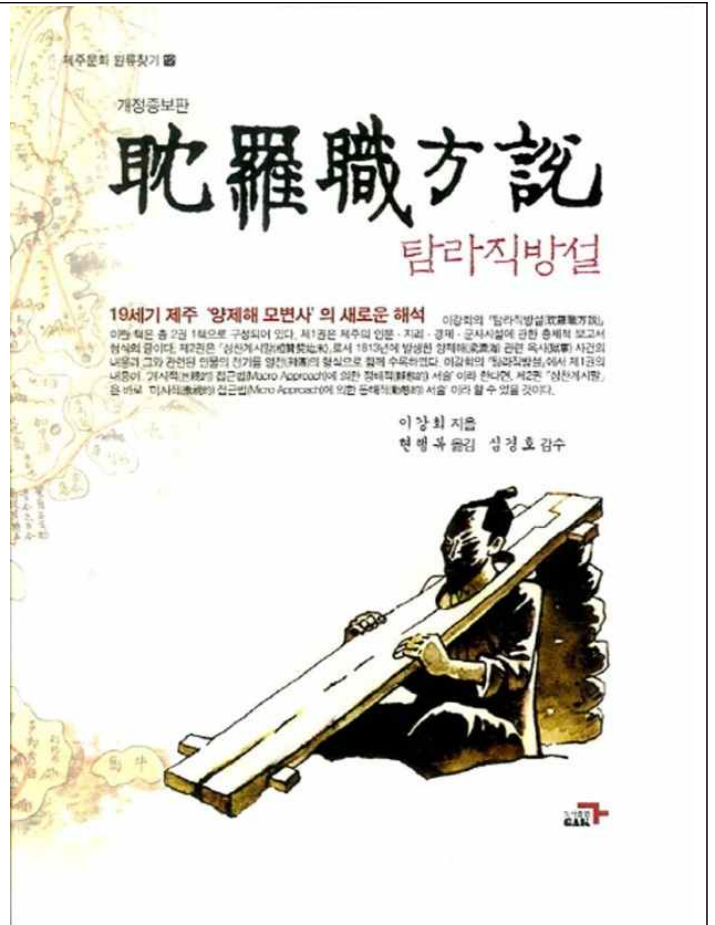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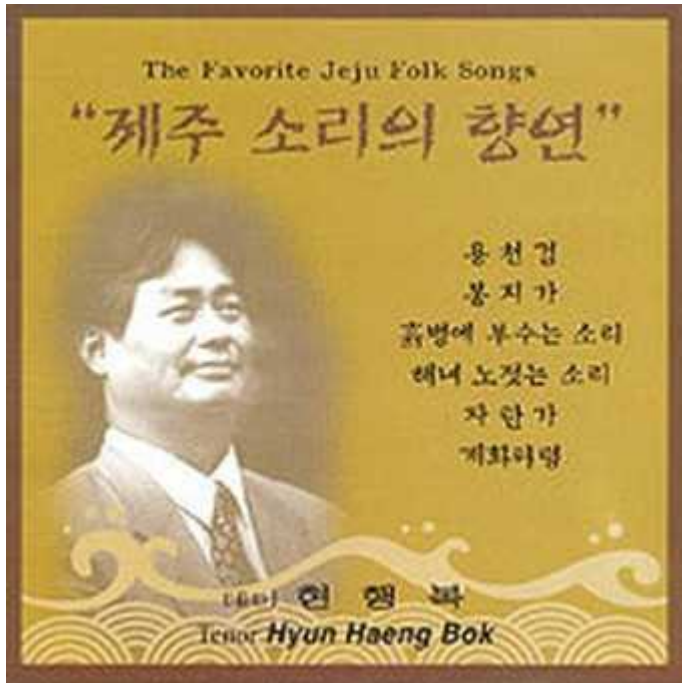
gukjenews.com · 포토뉴스 · 2024.02.23.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의 거장을 만나다"



행복 行福, 29세, 1956년병신(丙申)생, 호 마명(馬鳴), 남원을 위미리 출신, 영남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석사, 한학자, 성악가 (테너), 공연기획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원장, 제주도친족회 총무이사, 제주대학 및 영남대학 강사, 동굴소리연구회 대표, 제주 소리연구소 소장, 국내 최초로 우도 고래굴에서 동굴음악회 개최, 용연 선상음악회, 방선문 계곡음악회 등 창안 자연 체험 음악회 개최,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왔던 충암 김정(金淨.1486~1521)의 한시 '우도가(牛島歌)' 번역, <청용만고(聽春漫稿)> 등 단행본 9권 출간 연주현씨 대동보 (초간보~6수보) 서문 역주 작업.





오봉 梧鳳, 28세,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1923년 제주도 남제주 출생. 1943년 일본 고코쿠상업학교(興國商業學校)를 졸업하였고,
1969년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광복 후 좌익운동이 활발하던
제주지방에서 잠시 경찰에 몸담았다가, 1947년 상공부 광무국으로 옮겼다.

1956년부터 대명광업개발(大明鑛業開發)에서 전무로 있던 중 1958년 제4대 민의원선거에
남제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자유당 원내부총무로 발탁됨으로써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잠시 정치활동을 쉬다가 1963년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다시 제6대 국회의원예에 당선되어 국회운영위원장 겸 민주공화당 원내총무로 복귀하였다.

1967년에는 제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운영위원장, 1971년에는 제8대 국회의원으로 민주공화
당 원내총무, 1973년에는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건설위원회 위
원장, 1976년에는 유신정우회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1978년에 제주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제10대 국회의원예에 국회운영위원장 겸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민주공화당 당무의원, 민주공화당 제주도 당무협의회 의장, 한·콜롬비아의원친선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로 여야의 정치적 쟁점과 격돌의 위기를 조정하는 소임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1982년 사망하였다.



mbc 드라마 <제3공화국>에 출연한 현오봉 역할



재단법인 제주장학재단 설립 첫해인 1969년 장학금 지급 후 기념 촬영 사진 속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故 현오봉 초대 이사장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현오봉 의원과 제주 장학재단 현왕수 이사장(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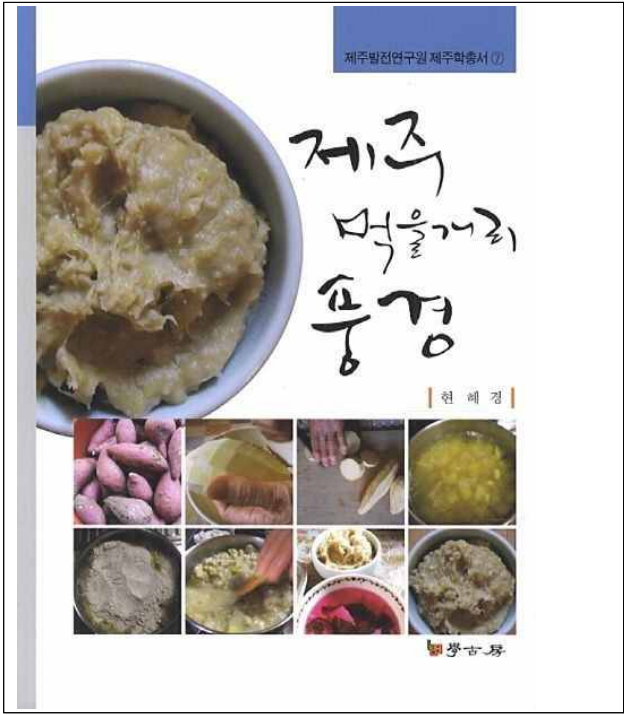
참고문헌 : 『역대국회의원총람』(한국국회인물사편찬회, 조세공론사, 1983)/『한국인물총감』(한국인물총감편찬위원회, 행정평론사, 1965)

철수 哲壽, 29세, 1947년정해(丁亥)생, 오봉의 장남, 성산을 시흥리 출신, 서강대학교 졸업, 대중회 부회장, LG그룹 이사, 성남시 새날을 여는 청년센터 이사장

왕수 王壽, 29세, 1956년병신(丙申)생, 오봉의 3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 졸업 재단법인 제주장학재단 이사장, 대중회 부회장

길웅 吉雄, 32세, 1942년임오(壬午)생, 제주우체국장

혜경 惠慶, 33세, 1971년신해(辛亥)생, 전남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사회학 박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Brain Korea 21 박사 후 연구원 및 학술연구교수, 제주대학교 한국사회과학 연구사업팀 전임연구원, The University of Sheffield(UK) 박사 후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Island Studies Journal> Guest Editor,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 등 다수, 제주학회 학술상(논문상), 저서 <제주먹을거리풍경>,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제주도개세(濟州島概勢)>(공저) 등 다수



관송 寬頌, 32세, 1966년생, 민평통 자문위원, 월드글로벌 대표, 대중회 이사, 감사

여방 麗芳, 29세, 1909년생, 해련(海聯) 이사장, 상공회의소 소장

명관 明官, 30세, 일명 秀男, 1941년생, 서울대졸, 행시합격, 삼성비서실장, 한일경제인협회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삼성라이온즈야구단 구단주, 전경련 상근부회장, 삼성물산 회장, 한국마사회장, 태통령표창, 동탑산업훈장, 체육훈장백마장, 대중회 고문



상훈 尙訓, 31세, 1965년생, 父 현명관, (주)삼성전자 부장,

중화 中和, 28세, 서예가, 소암 선생, 국립현대미술관,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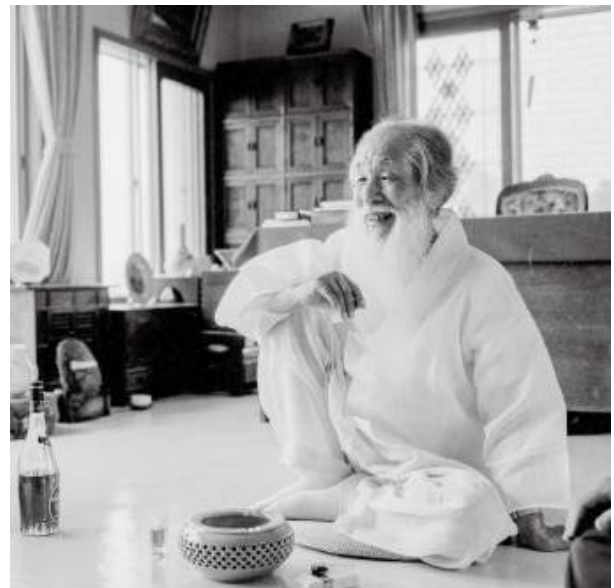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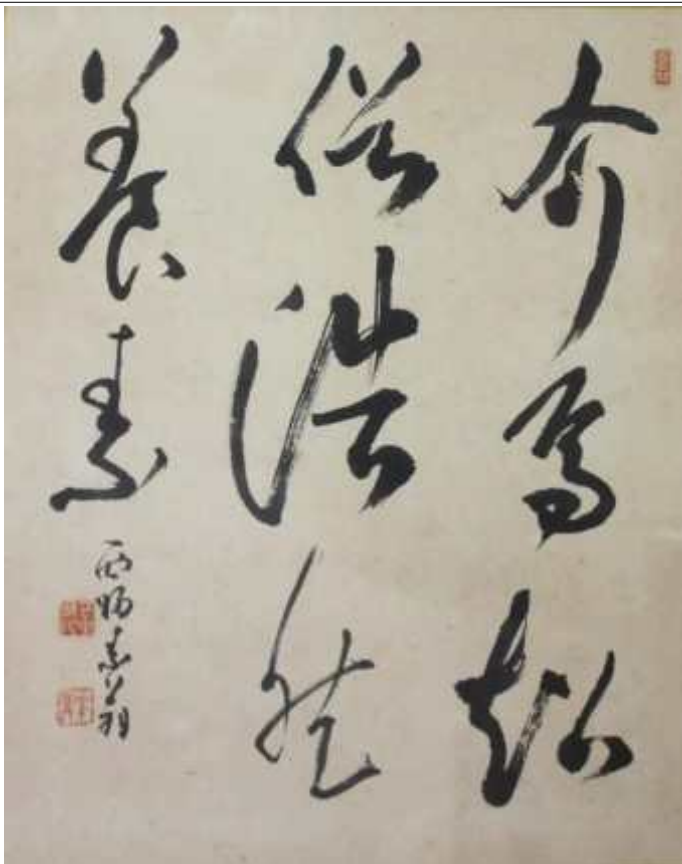
1907년 출생. 의생(醫生)이던 부친 아래에서 한학과 서예를 익혔다. 호는 소암(素菴). 제주 공립농업학교 중퇴 후 1925년 일본에 유학, 상업학교를 거쳐 1932년 와세다대학 정경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영화 자막을 쓰는 일, 일본 국회사무실, 광산회사 사무원 등을 전전하다 1937년 일본의 서예대가 마쓰모토(松本芳翠) 문하에 들어가 3년간 배웠고, 스승의 친구 쓰지모토(辻本史邑)에게 8년간 한예(漢隸), 북위서(北魏書), 왕희지 행·초서 등을 두루 배웠다. 1945년부터 공모전에 출품하기 시작, 마이니찌신문 주최의 전람회에서 3회 연속 수상했고 전일본서도전(全日本書道展)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1946년부터 도쿄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녹담서도원(鹿潭書道院)을 운영했고, 1953년 오오사카로 이주하여 여러 곳에 출강하며 서예를 지도했다.

1955년 귀국 후 제주사범대학과 서귀포중학교 등에 재직했고, 1957년 국전 입선 후 1959년부터 추천작가, 1969년부터 초대작가로 출품했고 간간이 심사위원을 맡았으나 1980년부터 출품하지 않았다. 1966년 목포에서 처음 개인전을 가진 뒤 제주·서귀포·여수·마산·부산 등에서도 가졌다. 또 1973년에는 제주소묵회(濟州素墨會)를 창립하여 후진을 지도했고, 그 뒤 목포·서귀포·대구·광주 등에 지부가 세워졌다. 1982년에는 중화민국 서예계를 순방하고 이듬해 타이완시 국립역사박물관 주선으로 초대전을 가졌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과 소묵회전 등에 주력했고, 1992년에는 예술의전당 주최로 개인전을 가졌다.

1995년부터는 서귀포 조범산방에 칩거했고, 이듬해부터 노환으로 치료받다가 1997년 12월 3일 사망했다. 지방 서예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1969년 제주도문화상, 1991년 서귀포 시민상(예술부문), 1997년 광주광역시 주관의 의재허백련 미술상을 수상했다. 타계하기 얼마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는 귀감을 보였고 평소 인격도야를 서예의 우선으로 여겼다. 글씨는 각체에 두루 통했는데 그중 초서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소암현중화서집(素菴玄中和書集)』(동산출판사, 1989)/『소암현중화서집(素菴玄中和書集)』(삼학문화사, 1992)/『소암현중화소품소장전(素菴玄中和小品所藏展)』(신명인쇄사, 1994)/『소암 현중화(素菴 玄中和)의 서예술세계 연구』(강경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第20周忌
素菴玄中和先生
追慕展

제20주기
소암 원종화 선생 추모전

2017. 12. 3(일) - 2018. 1. 14(일)

계주특별자치도립 東毫記念館

두륜 斗輪, 31세, 196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대중회 부회장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2023.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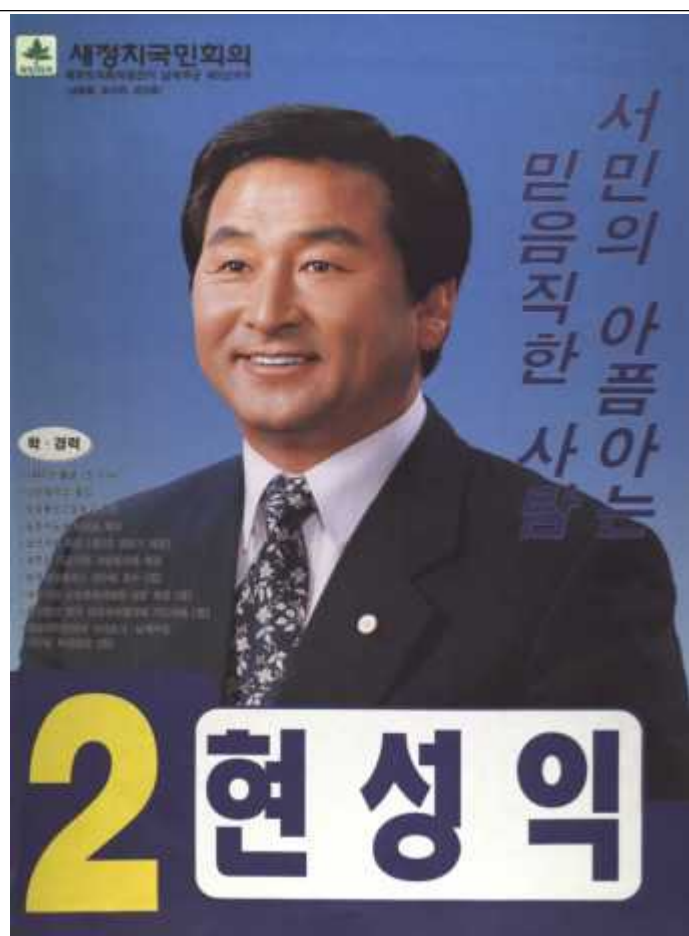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60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2, 9층
상담문의 02-3477-2131

성익 聖翊, 29세, 1947년정해(丁亥)생, 남원을 위미리 출신, 제주대 농업마이스터 대학 졸업, 농업마이스터(감귤) 지정, 남제주군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부의장, (사)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회의법 교수, (사)한국 농업마이스터 협회 중앙회장, 제주도 체육회 부회장,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제주연맹 초대회장, 대종회 부회장, 제주도친족회 회장, 저서 <지도자의 길잡이>, 대통령 표창



'2019 현장실습교육(WPL) 인큐베이팅 과정' 현장 교수 청원 감귤농장에서 "이론부터 현장 경험까지 집중교육" 출처 : 포인트데일리(<https://www.pointdaily.co.kr>)

한베콘텐츠협회-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한베영농기술교류' 조인식

민호 珉豪, 30세, 1971년신해(辛亥)생, 경희대학교 졸업, 금호타이어 중남미지사장

민철 珉哲, 30세, 1974년갑인(甲寅)생, 경성대학교 졸업, 제민일보사 사회부장

민규 珉奎, 30세, 1977년정사(丁巳)생, 세종대학교 졸업, 에스원 본사 과장

헌식 憲植, 29세, 1941년생, 대종회 부회장

재이 才二, 30세, 1942년생, 신성개발 대표, 대종회 부회장

승유 承宥, 28세, 1944년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대종회 이사

계흥 桂興, 29세, 1960년생, HDC영창 대표이사, 대종회 이사

준호 準虎, 30세, 1953년생, 대종회 이사

승윤 承潤, 30세, 1965년생, 한국경제신문 근무, 대종회 이사

상길 相吉, 30세, 1969년생, 대종회 이사

진영 眞榮, 31세, 1958년생, 새한농자재 대표, 대종회 이사

성준 盛竣, 31세, 1973년생, 신성개발 대표, 대종회 이사